

# KWDI

## 해외통신

2020년 3월 2차 (2020.3.16 ~ 3.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독일 GERMANY



#### 독일, 유자녀 여성의 고용 제고 목적으로 '종일교육' 확대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통계청은 '종일학교(Ganztagsschulen)' 제도를 통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최소 7시간의 수업을 제공한다.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점심을 제공한 후 오후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종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후 4시나 5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시간에 학생은 숙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일반 또는 특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부 종일학교는 다양한 협회와 협력해 스포츠 또는 음악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종일 교육(Ganztagsbetreuung)' 확대가 엄마들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공공예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발표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에 의한 국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종일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어머니 고용률이 3~7%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의뢰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고용률이 증가하면 가족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금 증가', '사회복지 지급 감소', '사회보험부담금 증가'로 공공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정부 예산 증가액은 연간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453억 원)에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6,905억 원) 규모에 이른다.

독일경제연구소의 카타리나 교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는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 시간을 늘려줄 것이며 여러 가족뿐만 아니라 공공예산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규모는 연간 최대 20억 유로에 달하므로 정부는 종일교육을 확대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DIW(2020),  
"Fiskalische Wirkungen eines weiteren Ausbaus ganztägiger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702895.de/diwkompakt\\_2020-146.pdf](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702895.de/diwkompakt_2020-146.pdf)  
(검색일: 2020.03.22).
- News4teachers(2019.05.19.),  
"Geplanter Rechtsanspruch: So viel kostet der Ganzttag für alle Grundschulkinder",  
<https://www.news4teachers.de/2019/05/geplanter-rechtsanspruch-soviel-kostet-der-ganzttag/>  
(검색일: 2020.03.25).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07.05.),  
"Betreuungslücken für Grundschulkinder schließ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grundschulkinder-schliessen/133604>  
(검색일: 2020.03.22).

남은 과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교육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수업을 진행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의 모든 주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크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현재 절반 정도의 초등학생이 종일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백만 개의 교육 장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15,000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내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건물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억 유로(한화 약 6조 7,263억 원), 종일교육 운영비용은 연간 최대 40억 유로(한화 5조 3,810억 원)로 예상된다.

한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종일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71%였지만(2017년 기준), 실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일학교 운영 비율은 48%에 그쳤다. 이에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종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기금 20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은 주 5일간 8시간의 돌봄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점심 이후 또는 방과 후 교육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는 종일학교 외에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호르트(Hort)’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호르트나 종일학교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주정부별로 살펴보면 함부르크가 9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이어 작센주(86%)와 브란덴부르크주(80%) 순으로 나타났다. 작센-안할트주와 베를린도 7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에른주와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이용률이 42%로 낮아졌으며,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30%,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에 그쳤다.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1.20.), “Ausbau der Ganztagsbetreuung finanziert sich zum Teil selbs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usbau-der-ganztagsbetreuung-finanziert-sich-zum-teil-selbst/144602> (검색일: 2020.03.22.).
- Spiegel(2020.1.20.), “Ganztagsbetreuung könnte sich zum Teil selbst finanzieren”, <https://www.spiegel.de/panorama/grundschulen-ganztagsbetreuung-koennte-sich-zum-teil-selbst-finanzieren-a-5bb3ff06-6235-41a8-a289-95f6ed48bc27> (검색일: 2020.03.22.).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2020년 12월 말부터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용품에 부과됐던 일명 ‘탐폰세 (tampon tax)’가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여성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5%를 부과하고 있으나 3월 1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탐폰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생리용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탐폰세가 폐지되면 20매 탐폰을 기준으로 7펜스(한화 약 105원), 12매 생리대는 5펜스(약 75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여성단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품과 다른 생필품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랫동안 탐폰세 철폐 운동을 벌여왔다. 원래 17.5%에 달했던 탐폰세는 노동당 의원이었던 다운 프리마로가 탐폰세 인하 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에 5%까지 낮아졌다.

#### 참고자료

- BBC(2015.02.09.), “Why the ‘tampon tax’ is here to stay- for a while at least”,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31299254/why-the-tampon-tax-is-here-to-stay-for-a-while-at-least> (검색일: 2020.03.27.).
- BBC(2020.03.07.), “Budget 2020: Pledges on tampon tax and the future of cash”,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72425> (검색일: 2020.03.27.).

최근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탐폰세 폐지 캠페인은 2014년 5월 골드스미스 대학교 학생이었던 라우라 코리튼이 주도했던 ‘Stop Taxing Periods’이다. 당시 코리튼은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탐폰세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3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코리튼은 2020년 3월 6일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탐폰세 폐지는 성차별주의의 끝을 뜻한다. 생리를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일도 생긴 것”이라며 탐폰세 폐지를 환영했다.

20년 가까이 지속한 캠페인으로 영국 정치권도 탐폰세 폐지를 지지했으나 지금까지 유지했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부가세를 매겨야 해서 영국 정부가 원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었다. 유럽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소 세율을 적용한 것이 5%였고, 영국은 2000년 이후 이 과세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더는 유럽연합법에 묶일 필요가 없게 됐고, 유럽연합 탈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영국의 탐폰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영국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생리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는 생리 빈곤(period pover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사건을 통해 청소년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처럼 영국에서도 비슷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 영국의 아동 권리 보호단체인 Plan International이 2018년 3월 14~21세 여성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참가자 중 42%가 생리대 살 형편이 안되어 화장지를 덧대는 등 임시방편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7%는 양말, 신문지나 종이 등으로 임시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한 적이 있다고 털어냈다.

생리 빈곤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국교육연합(the National Education Un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3만 7천 명 이상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수업을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초중고생 170만 명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예산 2천만 파운드(약 301억 원)를 편성했다. 생리대 지급은 각 학교가 필요한 분량의 생리대를 영국 교육부가 지정한 유통업자를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The Guardian(2020.03.06.),  
“Budget 2020: chancellor plans to finally end tampon tax”,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mar/06/budget-2020-chancellor-plans-to-finally-end-tampon-tax>  
(검색일: 2020.03.27).
- The Guardian(2020.1.18.),  
“Free period product to be available in schools and colleges in England”,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jan/18/free-period-products-to-be-available-in-schools-and-colleges-in-england>  
(검색일: 2020.03.27).
- Plan International(2018.03.12.),  
“40% of girls have used toilet roll because they’ve struggled to afford sanitary wear, survey reveals”,  
<https://plan-uk.org/media-centre/40-of-girls-have-used-toilet-roll-because-theyve-struggled-to-afford-sanitary-wear>  
(검색일: 2020.03.27).

## 프랑스, 성범죄 혐의 폴란스키 감독의 세자르 영화제 수상 소식에 비판 여론 확산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2월 28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 위치한 살 플레엘(Salle Pleyel) 극장에서는 프랑스 최대 영화 시상식인 제 45회 세자르(César)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으로 얼룩졌는데, 바로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 감독 때문이다.
- 논란은 시상식이 열리기 전부터 불거졌다.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나는 고발한다’(원제: J'accuse, 영문: An Officer and a Spy)가 무려 12개 부문 후보에 지명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시상식 보이콧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자르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도덕적인 잣대로 작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폴란스키 감독 후보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 영화인 수백여 명이 세자르 영화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하면서 위원회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폴란스키 감독과 그의 작품은 후보로 오른 상태로 시상식은 개최되었다.
- 폴란스키 감독은 미국에 거주하던 1977년, 미성년자인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범죄인정 조건부 감형협상(플리바게닝) 과정에서 돌연 출국해 버렸다. 40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프랑스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차례 폴란스키 감독을 자국으로 송환 및 기소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국적자인 폴란스키 감독은 파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는 프랑스 한 여배우가 폴란스키 감독에게 과거 18세일 때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폭로했지만, 폴란스키 감독은 혐의를 부인했고, 해당 시점이 과거 1970년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 이번 폴란스키 감독의 후보 지명 이후 프랑스의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 문화부 장관(Culture Minister)은 공식석상에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평등정책부 장관(Equality Minister) 역시 폴란스키 감독 후보 지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세자르 영화제에서 폴란스키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폴란스키 감독의 감독상 수상이 발표되자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다가 객석 일부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아델 애넬(Adele Haenel)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시상식장을 떠났고, 이어 몇몇 참석자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애넬은 과거 그녀가 12세 때 처음 출연한 영화감독이 본인을 성추행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혀 프랑스 내 미투(Me Too) 운동에 앞장서기도 한 배우이다.

## 참고자료

- BBC(2020.02.14.),  
“France’s César Academy board quits en masse amid Polanski row”,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494929>  
(접속일 : 2020.03.20.).
- France 24(2020.02.29.),  
“Walkouts at ‘French Oscars’ as Roman Polanski wins best director”,  
<https://www.france24.com/en/20200229-walkouts-at-french-oscars-as-roman-polanski-wins-best-director>  
(접속일 : 2020.03.20.).
- Euronews(2020.02.29.)  
“Women walk out of French ‘Oscars’ to protest Roman Polanski win”,  
<https://www.euronews.com/2020/02/29/women-walk-out-french-oscars-protest-roman-polanski-win-n1145816>  
(접속일 : 2020.03.20.).
- Reuters(2020.02.27.),  
“Filmmaker Polanski will not attend ‘French Oscars’ in Paris over criticis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wards-cesars-polanski/filmmaker-polanski-will-not-attend-french-oscars-in-paris-over-criticism-idUSKCN20L1YO>  
(접속일 : 2020.03.20.).

약 수백여 명의 여성단체 및 여성시민들은 극장 앞에서 폴란스키 감독 구속을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자들은 폴란스키의 이름에 ‘강간하다’란 뜻의 프랑스어(*violer*)를 더해 ‘비올란스키(*violanski*)’란 단어를 외치기도 했으며, 시위가 고조되고 시위대 일부가 극장으로 무단진입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폴란스키 감독은 사람들이 본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public lynching*)이 두렵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족 및 동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화제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폴란스키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상식은 비판의 목소리로 얼룩진 채 끝나게 되었다.